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ASML 실적 쇼크 완화, 모건스탠리 호실적 등에 강세

미국 증시 리뷰

16일(수) 미국 증시는 ASML 실적 쇼크 우려가 완화되며 엔비디아 상승, 모건스탠리 호실적에 따른 금융주 상승 등 개별 업종별 모멘텀이 이어진 결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0.79%, S&P500 +0.47%, 나스닥 +0.28%)

영국의 9월 CPI는 전년동기대비 1.7% 상승하며 전월치(2.2%)와 컨센서스(1.9%)를 하회.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하며 전월치(3.1%)는 상회했지만 시장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 영국은행(BOE)이 연내 두번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나설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영국 국채 수익률은 큰 폭의 하락 시현.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9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 지난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며 가파른 하락세 지속. 또한,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도 0.1% 하락하며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집계측에 따르면 금번 미국의 수입물가 하락은 에너지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7% 급락하며, 낮은 에너지 물가가 비에너지 물가 상승분을 상쇄한 점이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

한편, 미국의 아마존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버지니아주 유틸리티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지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아마존 또한 원전기업과 협력하며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및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충당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엔비디아(+3.13%), 테슬라(+0.80%)는 상승한 반면 애플(-0.89%), 마이크로소프트(-0.63%), 알파벳(-0.18%), 메타(-1.62%), 아마존(-0.43%)은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 연출. 주요 IT 기업이 부진한 가운데 경기민감주 비중이 높은 러셀 2000 지수는 +1.64% 상승하며 3년래 최고치 기록. 다우지수도 +0.8% 상승하며 사상최고치 경신. 업종별로는 유틸리티(+2.0%), 금융(+1.2%) 업종이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주요 경제 지표,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 등 매크로단 이슈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미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드언스에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 오늘 저녁 발표될 미국의 소매판매(MoM, 컨센서스 0.3%) 등 실물지표만 무난하게 발표된다면 11월 초 고용보고서 발표 이전까지 매크로 이슈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

이 날 모건스탠리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 급증한 32억 달러를 기록. 투자은행 부문 호조로 3분기 EPS는 1.88달러로 컨센서스(1.58달러)를 상회하며 약 6%대 상승 시현.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최근 3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연 미국 금융주가 연이어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중. 여기에 시클리컬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와 러셀2000이 최근 반등세를 보이는 점은 투자자로 하여금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편, ASML 실적 쇼크로 인해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 날 반등세를 보임(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2%). ASML 컨퍼런스콜에서 반도체 업황은 AI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안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ASML 실적 쇼크에 급락했던 엔비디아(+3.13%)가 재차 큰 폭으로 상승 전환했다는 점은 여전히 AI 테마가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 또한, 데이터센터 가동에 핵심 에너지원인 원전주가 최근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AI 관련 테마가 증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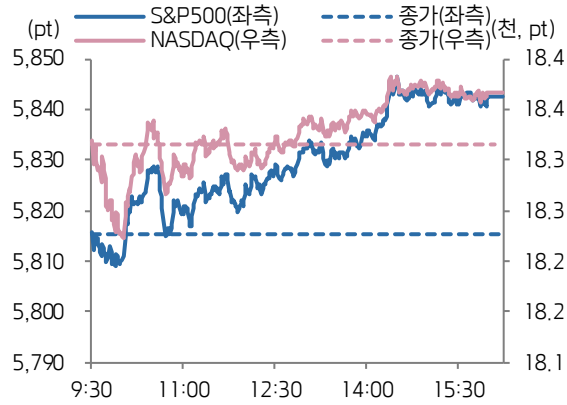
전일 ASML 신규 수주 및 가이드언스 쇼크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주들의 급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대형 기술주의 실적과 가이드언스에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다수 포진한 글로벌 증시의 민감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 이에 넷플릭스(10/18), 테슬라(10/24), 마이크로소프트(10/31) 등 월 중후반부에 발표될 주요 빅테크 및 IT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할 필요.

16일(수) 국내 증시는 ASML 신규수주 및 가이드언스 쇼크,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제한 요인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락한 결과 양 지수는 하락 마감 (코스피 -0.88%, 코스닥 -1.04%)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미 증시에서 AI 반도체, 원전, 금융주 상승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 다만, 장 후반부 TSMC 실적 및 가이드언스가 국내 반도체 업종에 미칠 주가 영향이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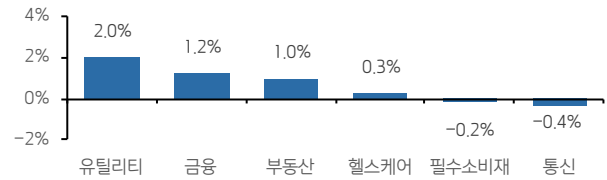
한편, 주요 기업 실적 외에도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점도 증시의 변동성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 최근 미 증시에서 에너지, 금융, 산업재 업종이 상승한 배경에는 트럼프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방산주 강세, 신재생에너지 약세 등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 다만, 아직까지 두 후보간 지지율이 박빙세를 보이고 있고 점차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주식시장 내에서도 수시로 트럼프-해리스 트레이드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월말로 갈수록 적절한 변동성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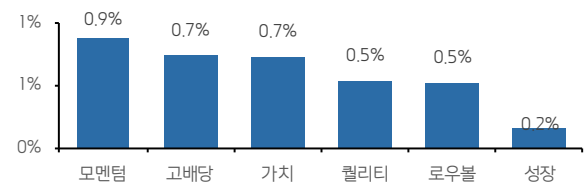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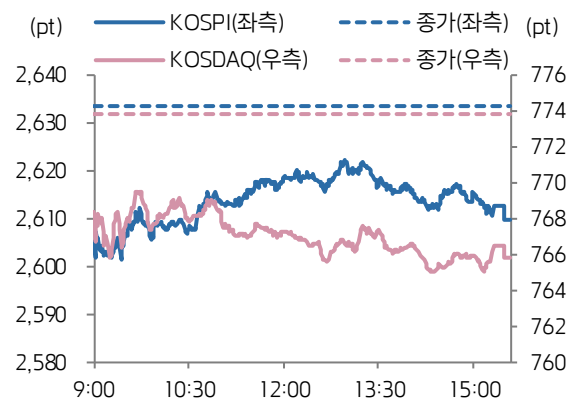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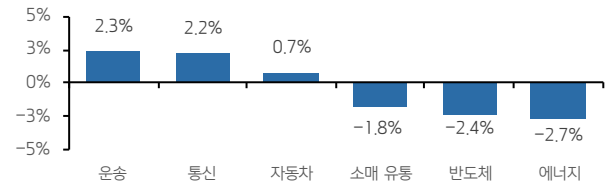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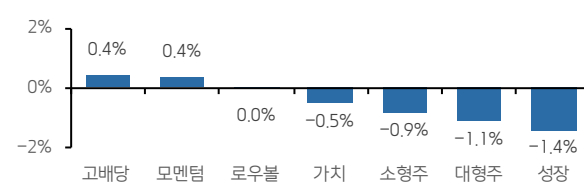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31.78	-0.89%	+20.84%	GM	49.01	+2.42%	+37.55%
마이크로소프트	416.12	-0.63%	+11.26%	일라이릴리	916.42	+0.34%	+57.98%
알파벳	165.16	-0.18%	+18.53%	월마트	81.22	-0.53%	+56.06%
메타	576.79	-1.62%	+63.44%	JP모건	223.64	+0.56%	+34.62%
아마존	186.89	-0.43%	+23%	엑손모빌	120.66	+0.26%	+23.78%
테슬라	221.33	+0.8%	-10.93%	세브론	148.73	+0.68%	+2.96%
엔비디아	135.72	+3.13%	+174.12%	제너럴일렉트릭	81.22	-0.5%	+56.1%
브로드컴	176.82	+0.48%	+60.11%	캐터필러	393.62	+1.45%	+34.78%
AMD	156.13	-0.33%	+5.92%	보잉	154.90	+1.67%	-40.57%
마이크론	109.24	+4.72%	+28.39%	넥스트에라	84.39	+1.9%	+4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10.36	-0.88%	-1.69%	USD/KRW	1,364.50	-0.13%	+5.94%	
코스피200	347.26	-1.09%	-3%	달러 지수	103.53	+0.26%	+2.17%	
코스닥	765.79	-1.04%	-11.63%	EUR/USD	1.09	-0.28%	-1.6%	
코스닥150	1,295.03	-1.32%	-7.06%	USD/CNH	7.14	+0.02%	+0.16%	
S&P500	5,842.47	+0.47%	+22.49%	USD/JPY	149.65	+0.3%	+6.1%	
NASDAQ	18,367.08	+0.28%	+22.35%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3,077.70	+0.79%	+14.3%	국고채 3년	2.875	-3bp	-27bp	
VIX	19.58	-5.14%	+57.27%	국고채 10년	3.005	-4.2bp	-17bp	
러셀2000	2,286.68	+1.64%	+12.81%	미국 국채 2년	3.938	-0.8bp	-31.2bp	
필라. 반도체	5,155.86	+0.21%	+23.48%	미국 국채 10년	4.012	-1.9bp	+13.3bp	
다우 운송	16,562.66	+1.94%	+4.18%	미국 국채 30년	4.296	-2.4bp	+26.8bp	
상해종합	3,202.95	+0.05%	+7.66%	독일 국채 10년	2.184	-3.8bp	+16bp	
항생 H	7,267.98	-0.14%	+25.99%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1,501.36	-0.39%	+12.82%	WTI	70.39	-0.27%	-0.37%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4.22	-0.04%	-3.66%
Eurostoxx50	4,908.71	-0.77%	+8.57%	금	2,691.30	+0.46%	+24.59%	
MSCI 전세계 지수	851.25	-0.69%	+17.09%	은	31.97	+0.69%	+32.75%	
MSCI DM 지수	3,728.40	-0.67%	+17.65%	구리	436.75	+0.69%	+12.26%	
MSCI EM 지수	1,149.73	-0.89%	+12.31%	BDI	1,766.00	-2.65%	-15.66%	
MSCI 한국 ETF	62.87	+1.24%	-4.06%	옥수수	404.50	+0.81%	-19.66%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84.25	+0.82%	-12.67%
비트코인	67,661.45	+1.78%	+59.17%	대두	978.25	-1.29%	-21.47%	
이더리움	2,619.37	+1.84%	+14.77%	커피	258.00	+0.51%	+37.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